

“공급·수요 다 무너진 초유 위기… 대공황때보다 더 큰 뉴딜 필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美 컬럼비아대 교수 인터뷰

미국 뉴욕주를 둘러싼 과다한 확산되는 와중에 맨해튼에서 가장 활동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늘 상 패활하고 바쁜 일상을 즐겼던 그였지만 지난 4일(현지시간) 유난히 지친 목소리였다. 격리 중에도 하루에 신문과 방송 인터뷰를 몇 개씩 소화하고 있다는 그는 통화 중에 유난히 ‘실패’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 비교우위를 다른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진 제공=안톤 코리네 (Anton Korinek))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다. 아시아나 미국은 이와 관련해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 막기’의 본보기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됐다. 한국은 그 어떠한 국가보다 바이러스 확산 막기를 잘했으니 경제적 타격이 타 국가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글로벌 공동체가 현재 경제위기를 함께 해결할 방법은 없나. ▶그럴 만한 글로벌 리더십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선 보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 둘째, 현재 많은 신흥국이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아르헨티나는 조만간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G20 리더십이 있었다. 당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글로벌화의 후퇴를 가져올까. ▶역설적이지만 지금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협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없다. 국경도 없다. 한 국가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른 국가에도 전염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가 간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hyper-globalization)’에 너무 의지해왔다. 빠른 속도의 글로벌화를 뜻하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피크’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돈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흘러 다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급망 붕괴를 경험했다. 글로벌화가 시작됐던 19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은 중국이 자국의 일자리를 뺏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은 어떤 나라든 마스크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 미국은 심지어 의료장비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글로벌 협정이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국가 간 경계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국가들이 벗어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전에도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열기가 식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열기는 점차 빠르게 식을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다들 뉴딜을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지금은 과거 위기 때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다. 대공황 시기를 돌이켜보자. 총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총수요 회복에 집중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붕괴됐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큰 규모의 정부 지출이 요구된다. 공화당에서는 미국의 부채 규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더 걱정스럽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는 9월 100%를 넘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나는 미국 부채 규모를 걱정하진 않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애머스트칼리지에서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 취득했다. 1970년 예일대에서 정교수가 된 후 스탠퍼드대, 옥스퍼드대, 프린스턴대를 거쳐 현재 뉴욕 컬럼비아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3~1995년 빌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했고 1997~2000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로 재직했다. 2001년 ‘비대칭 정보의 시장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V자형 경기회복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 ▶그렇다. 이제는 그 누구도 V자형 회복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두 달 전만 해도 V자형 회복을 기대했다.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10주 정도 사람들을 지원하면 된다고 예상했다. ‘경제’라는 환자가 병원에 10주 동안 입원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경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회복의 신호는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팬데믹이 ‘통제’되기 전까지는 예상조차 어렵다. 미국의 경제는 과거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번에) 통제된다 하더라도 2차, 3차, 4차 파도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이 통제된 이후를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팬데믹이 통제되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바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인 중 절반 정도가 예금계좌에 1000달러도 없다. 당연히 소비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학 교과서, 위기때 리스크 포함해 다시 써야”

—코로나19가 경제학에 준 교훈은. ▶교역이론의 기본은 비교우위였다. 비교우위를 다른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한다. 한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모든 교역 대상 품목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은 다른 나라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역국의 장점을 이용해서 생산을 최적화하는 게 비교우위 이론이다. 하지만 기존 교과서에서 리스크(위험)에 대한 부분은 안 가르쳤다. 20년 전 독일이 러시아와 천연가스

매우 위험성이 높은 계약이라고 생각했다. 러시아는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독일은 기로에 놓였다. 오래된 교과서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복잡성과 위험성을 반영한 비교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국 내 불평등 증가 여부는 11월 대통령선거에 달렸다. 지금은 예전보다 뚜렷하게 불평등이 커졌다. 가령,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 국민에게 1200달러를 지급하는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건 아니다. 이들에게 불평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어두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코

로나19 위기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이 하나라도 있을까. ▶과학과 전문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본다. 과학자들과 전문가의 말을 들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잘했다. 미국을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는 매년 정부 예산에서 과학 부문 예산을 줄였다. 그게 현재 실패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로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으니 앞으로는 과학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출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뉴딜을 만들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다. 그 어떤 국가도 혼자 경제 회복을 할 수는 없다. 미국이 자국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인도,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것뿐이다. 한영경 기자·윤성영 연구원

“보험설계사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정규직 되세요.”

#불안했던 어제는 낫바이 #업계최초정규직 #경력자대환영
#안정적기본급 #4대보험 #복지후생 #인센티브속속

EFA 취업설명회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14:00~16:00
장 소 웨라트 서울 플라자 강남 지하층 디자인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평대로 160)

#피플라이프 정규직 EFA로 커리어 업그레이드!

직업의 안정, 소득의 안정, 고소득 실현의 꿈이 가능한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를 공개 채용합니다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공개 채용

모집분야	EFA 상담매니저
근무형태	정규직 (4대보험 적용, 기본급 + 인센티브)
승진기회	EFA - 수석 EFA - 사업단장 - 본부장 (임원)
소득구조	상담매니저: 기본급 월 250만 원 + 성과인센티브
활동지원	매월 08 20~40개 지급 (상담매니저), 활동비 별도

※보험업 유경력자 우대

1. 직업의 안정

정규직으로 4대보험 및 복리후생 제공

2. 소득의 안정

월 250만 원 기본급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장

3. 고소득 실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고소득 가능

EFA 피플라이프 를 검색하세요!

문의 02-2251-6862 / efa@peopliflife.co.kr